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오늘 1부, 2부 예배 말씀과 저녁 찬양집회를 인도해 주시는 구자억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11월호를 남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본당입구 메일함에서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3. 11월 월삭 예배는 11/1(주일) "주일 예배"로 대신합니다.
4. 다음주일(11/1) 일광절약제(Daylight Saving Time Ends)가 종료됩니다. 예배 참석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억 목사 초청 찬양집회

날짜 : 10월 25일(주일) 오늘 오후 6시 * 장소 : 대예배실

• 큐티(말씀 묵상) 세미나

날짜 : 11월 5일(목) ~ 6일(금) * 시간 : 오후 7시
강사 : 김은혜 사모(큐티 전문 강사)
신청 : 교회 로비 및 온라인 신청

• 통역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봉사 시간 : 주일 2부 예배 / 한 달에 한 번 섬김도 가능합니다.
* 문의 : 담임목사

• 방송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봉사 시간 : 주일 2부(오전 10시 30분) 예배
* 문의 : 윤성민 전도사

• 재정부 안내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각 위원장, 사역장 또는 팀장님께서는 재정부에서 준비한 양식을 수령하셔서 2027년 한해 사업 계획과 관련 예산을 10/31까지 재정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중에 재정위원회와 사역장의 협의를 통해 최종예산이 확정됩니다.
* 문의 : 구자현 장로

• 성가대 찬양 연습

11/1(주일)부터 매주일 저녁 추수감사절 찬양과 성탄절 칸타타 연습이 시작됩니다. 성가대원이 아니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함께 준비하며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연습 : 매주, 주일 저녁 7시, (6시 저녁식사)

• 교우동정

[장례] 10/24(토) 윤미아(윤훈로) 집사님 아버님의 장례예배가 잘 마쳐졌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계시는 모든 유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수요 중보기도회> (Wednesday) / 6:45 am
<목요 에스더기도회> (Thursday) / 10: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사명 선언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을 경험한 예배자들이
말씀으로 양육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지난주 헌금 통계

일반헌금 $12,981.00	십일조: $6,640.00	감 사: $1,295.00
	주 일: $1,864.00	기 타: $3,182.00
지정헌금 $530.00	중남미선교: $500.00	건 축: $3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5권 43호
2026년 10월 25일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2026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mcosf.org

<성령강림후 스물두번째주일> 예배순서

1부(8:00am) **2부**(10:3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Presider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참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신앙고백 Apostles' Greed 사도신경

찬송 Hymn / 250장(통182)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기도 Prayer / 유영재 장로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 아 하나님의 은혜로 -

▲ 신앙고백 Apostles' Greed / 사도신경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기뻐해,
존귀 오 존귀하신 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기도 Prayer / 유영재 장로

찬양 Choir / 할렐루야 찬양대
- 아 하나님의 은혜로 -

교회소식 Announcement ..... 영상광고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 *특송: 이창영 집사*..... 다같이

▲ 성경봉독 Scripture .....마(Mt) 14:25-27..... 다같이

설교 Sermon ..... 구자억 목사

<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

O you of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 파송찬송 Closing Hymn/ 주만 바라 볼지라

▲ 축도 Benediction .....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6년 10월/11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10월 25일	1부	예수마을 목장	담당자	유영재장로	베뢰아 목장
	2부			유영재장로	
다음주 11월 1일	1부	OK 목장	담당자	정미숙권사	Unity 목장
	2부			김세희권사	

설교요약

우리의 인생은 잔잔한 바다와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직장과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건강과 자녀의 문제 등 우리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직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로 나아갔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순종의 길에도 풍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자, 주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고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었지만, 눈앞의 풍랑에 시선을 빼앗기자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즉시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어려움이 계속되면 눈앞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도 상황 때문에 염려합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믿음의 걸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는 백성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누구를 따를 것인지 분명히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 앞에서 마음을 나누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

<설교 요약>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낮은 자를 일으키시고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비록 진흙 속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막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변의 상황과 문제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듯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인생의 바다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 < 나눔 질문 >

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경험이 오늘의 나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2)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당시에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3)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맡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4) 주님만 바라보는 삶은 단순히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실천하고 싶은 작은 결단은 무엇입니까?

금주 애찬 섬김

	금주 (10월 25일)		다음주 (11월 1일)
	김학웅.김정희권사		박인숙장로
	생일감사		범사감사
	베뢰아목장		Unity목장